

## 인도네시아 바탐 강재모/김지연 선교사의 2020년 12월 선교 편지

코로나가 아무리 심할지라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성탄을 기념하는 예배가 인도네시아 땅에서 드러지고 있습니다. 바탐의 경우도 중·대형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로 드러지고, 약 100명 미만의 소형 교회들은 안면 가리개와 마스크를 끼고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입니다.

백신 개발 소식은 힘든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끝내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 갈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선진국으로부터 시작하여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면 이 곳 인도네시아는 빨라도 내년 말이 지나야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완벽한 백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깊이 믿고 사는 우리들은 이미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 갈수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 선교 편지 # 페이스 북을 통하여 나누었던 사역들을 사진과 함께 나눕니다.

<12월 12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신 24:19)

1. 매년 12월이 되면 성탄을 앞두고 “에벤에셀 학교” 학생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심방하여 예배드리고 생필품을 나누었습니다.

2.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직접 심방을 못하고 학교에서 전달하였는데 예년보다 더욱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3. 고아원, 편부모 가정 등 총 85가정을 선정하여 이틀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4. 에벤에셀 학교가 “축복의 통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 선교사로서의 고민....

- 목사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영적인 필요”(복음 전도)를 채워 주는 일에 더욱 집중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하지만 이 곳 선교지의 상황은 영적인 필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적인 필요는 이미 현지 교회와 목회자들이 어느 정도(?) 감당 할 수 있다는 것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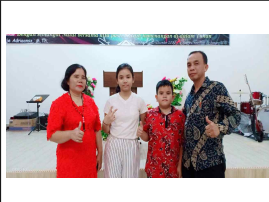
그러기에 현지인들만으로는 감당 할 수 없는 부분을 선교사가 함께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와주는 것에는 끝이 없다는 것. . . 돕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는 것 . . .

-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선교인가? 고민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도 할수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역에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 페이스 북에 다 올리지 못하는 사역을 몇 가지 나눕니다. (물품 지원 등의 사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1) GPPS 기반 먼따로 교회(로벨 목사)는 참 어렵게 목회하는 곳입니다. 1년간 키보드 교체를 위해 기도하며 현금을 모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기존 키보드가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키보드 반주 없이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라는 기도요청에 지원하였습니다.

2) 스피릿 교회의 지원으로 마짓 목사님 교회의 예배를 위한 악기 등이 준비 되어 감사합니다.



3) 새로 건축된 2층 소강당 필요 물품 중 의자 100개와 스피커 등이 한국의 "하움"(하나님이 세움 이라는 뜻의 기업)을 통하여 지원되어 준비되고 있습니다.

4) 그 외에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인도네시아의 가정들을 위해 귀한 현금(첫 월급의 십일조, 촬영 감독 가족의 특별 현금 등)을 해 주어서 약 삼백 가정에 스바코(생필품/ 쌀, 식용유, 라면, 계란, 설탕 등)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 2020년 12월 /21년 1월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1. 내년 2021년 여름 시작되는 신학기 신입생 모집을 시작합니다.

- 코비드 사태로 기독교 사립 학교인 저희 에벤 에셀 학교의 신입생 모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슬람 교육에 기반을 둔 공립학교(수업료 무료)를 선호하게 됩니다.

- 목표 : 유치원 60명, 초등 100명, 중등 60명, 고등 40명

- 예년과 다르게 입학금을 전면 무료로 하였으며, 교복, 책, 수업료 등을 1년간 분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학교 재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 결단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 2. 기증받은 여름 샌달(컨테이너 3대 분량)을 현지에서 잘 배분 할 수 있도록

- 일부 성탄을 맞이 하여 전달을 하였으며, 앞으로 고아원, 기독교 학교, 현지 교회, 빈민 지역, 소외된 오지 섬 등에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 다양한 지역으로 전달을 하는 경우에도 많은 경비(운송비 등)가 소요되기에 일부는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판매경로가 열리도록



3. 에벤 에셀 학교의 학생들 가운데 가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연결하여 공부를 계속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위하여 (성적 우수 장학생도 함께 선발 지원 중입니다.)

- 저희 학교의 학비는 매월 초등생의 경우 약 2만원, 중등생은 약2만 5천원, 고등생은 약3만 5천원 입니다 (2020년 12월 현재 약 150명의 학생들에게 매월 약 300여만원의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4. 에벤에셀 학교의 얼굴인 정문 확장 공사와 경비실, 담장 추가 공사를 위하여

- 수 년간 고민이던 정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등교 시간에 너무 많은 학생들과 오토바이가 함께 들어오면서 위험이 계속 되었던 입구 확장 공사를 하게 되면서 경비실도 옮기고 있습니다.

- 필요 재정과 공사 이후 안전한 등하교 길이 되기를



〈학교 안에서 바라본 모습〉



〈학교 밖에서 본 모습〉

5. 영상(온라인) 선교를 위하여 -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선교 사역에 대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자 합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한 사역을 구상중인데 동역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 연락처 >

아이디: kangjaemo1004 강재모선교사 kangjaemo@hanmail.net / 김지연선교사 wec1004@hanmail.net

예금주 강재모/ 시티은행 8910153025501 우리은행 1002-730-785647